

육계자조금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위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농가 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소식 2011년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

인터뷰 이홍재 2대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외고 육계자조금을 생각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6** volume 20

2011년도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일자 : 2011년 5월 24일(화) 오후2시

●장소 : 대전 신로알예식장



▲ 사진 왼쪽부터 최길영 감사, 이홍재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한병권 대의원회 의장, 김의겸 대의원회 부의장

2대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에 이홍재 씨 선출

2011년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에는 한병권 前부의장

새롭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관리위원장에 이홍재 전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이 선출되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5월 24일 대전 신로알예식장에서 2011년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로 임기가 만료된 이준동 관리위원장을 대신할 신임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및 대의원회 의장, 감사를 선출하였다.

당초 신임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에는 이홍재 전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과 최길영 전 감사가 후보등록을 마쳐 2파전이 예상됐으나 이 날 최길영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관리위원장 선출 규정에 따라 제2대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에 이홍재 전 의장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3년 5월 23일까지이지만 대의원 임기(4년)가 2013년 12월 21일까지임을 감안해 관리위원장 임기도 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12월 21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

이 날 후보자 인사말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최길영 전 감사는 “육계자조금 거출률이 다른 축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거출률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결집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히며 “아무쪼록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재 신임 관리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의 당선은 4년 전,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뽑아야 한다며 대의원회 자체를 거부했던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여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대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최길영 후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계열사와의 갈등 심화로 농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농가와 육계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흥재 전 대의원회 의장과 최길영 감사의 관리위원장 후보등록을 위한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직에는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에 한 병권 전 대의원회 부의장이 선출되었고 감사직에는 최길영 전 감사가 재선임되었다. 또한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김의겸 전 감사가 선임됐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선거에 앞서 그 동안 육계자조금 거출률 향상에 기여했던 이들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육계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했던 계열사로는 체리부로를, 농가는 손원철 대의원(전북 남원)을 선정해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 5월 3일에 실시했던 2010년도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다. 방진우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자조금 거출과 관련하여 농가와 자조금 사무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거출금 누락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 스스로 납부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의사항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 열렸던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안)과 대의원 선거규정을 비롯하여 관리사무국 운영규정, 관리위원장 선거 규정 등 총 16개 항목에 걸친 육계자조금 제반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기타 논의사항에서는 다른 축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육계자조금의 거출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북의 김국록 대의원은 “지방비지원의 경우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농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고 자조금 납부를 하지 않는 농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조금을 납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김한영 대의원은 “자조금을 내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자조금 납부에 대한 농가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나 자조금소식지를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준동 전 육계자조금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육계산업은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며 풍전등화에 봉착해 있고 더욱이 중국이나 태국 CP 그룹 등에서 값싸고 저렴한 닭고기가 수입된다면 국내 육계산업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며 “유비무환이라고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하나로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자조금 밖에 없다”고 밝히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거출이 육계산업의 위상을 정립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2011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임기 2년의 육계자조금관리 위원장에 이홍재 전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하였다. 이에 새로 선출된 이홍재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을 만나 육계자조금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이홍재

**“거출률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육계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큰 부담감과 함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올해 육계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 합

니다. 하나는 거출률 향상이고 또 하나는 자조금 효과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출률 향상을 위해서는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 자조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계열사와도 대화를 통해 협력해나갈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정책자금이나 보조사업 지원 시 자조금을 내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육계 계열화사업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과 가축계열화법 제정, 그리고 병아리품질에 관한 연구용역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자조금을 가지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자조금사업에서 홍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홍보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닭고기 소비홍보도 ‘닭고기를 많이 먹자’라는 보편적인 홍보보다는 ‘국산 닭고기가 수입산 닭고기 보다 우수하다’라는 특화된 전략으로 소비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산 닭고기 인증제입니다.

수입산 닭고기로부터 시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농가들이 가장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집중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산 닭고기 인증제”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대형식당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육계자조금이 한우나 한돈, 낙농자조금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는데 국민들에게 육계자조금의 존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육계농가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육계자조금사업은 농가 스스로 참여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농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산농가들이 육계산업의 주축이 되어야 하고 자조금사업은 육계산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조금사업 참여가 우리 육계산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산농가들이 육계산업의 주축이 되어야 하고 자조금사업은 육계산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다

관리위원회, 2차 회의서 육계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의결

육계자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대의원들이 직접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계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육계자조금 제반 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 5일 개·제정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규정을 비롯하여 관리사무국 운영규정, 관리위원장 선거 규정 등 총 16개의 제반 규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어 지난 4월로 임기가 만료된 이준동 육계자조금 관리위원장을 대신할 육계자조금 관리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관리위원장은 ‘축산자조금 관련법’ 개정예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만약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하고 후보자수가 1명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동 현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권영웅, 한병권, 김의겸, 김국록 관리위원 등이 선거위원을 맡았다.

이준동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중에서 후보자가 나오는 만큼 육계자조금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사업결산(안)은 대의원회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의결에 앞서 지난 5월 3일에 실시한 2010년도 육계자조금 내부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최길영, 방진우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농가와 사무국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거출금 누락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이어 자조금 거출의 지역별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국과 대의원들의 공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육계자조금 사업 중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은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육계자조금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육계자조금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당부했다. 🍎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김치를 활용한 닭고기 요리

닭고기 김치말이 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저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치는 요구르트, 낫또 등과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꼽힐 만큼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닭고기도 1고3저의 식품으로 불리는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김치와의 궁합도 좋다고 하니 이 둘의 만남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저녁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김치를 활용한 닭고기 요리를 해보심이 어떨지. 🍴



닭고기 김치말이 찜

| 재료 |

닭가슴살 400g, 불린참쌀 1/2컵, 당근 1/2개, 생표고버섯 4장, 배추김치 2잎, 간장, 마늘, 생강, 청주, 소금, 후추, 인삼가루(계피가루, 솔잎, 감초), 녹차잎, 계란노른자

| 만들기 |

① _ 닭가슴살은 5mm두께로 넓게 포를 떠 칼등으로 두들긴 다음 소금, 후추, 인삼가루(계피가루)를 뿌려 밑간을 한다.

② _ 참쌀은 불리고 당근, 생표고버섯, 김치 등을 얇게 채썰어 간장, 마늘, 생강, 청주, 후추를 조금씩 넣고 골고루 잘 섞이도록 버무린다.

③ _ 김발에 은박지를 깔고 ①의 닭고기를 넓게 편 후 계란노른자를 바르고 ②의 버무려 놓은 재료를 놓아 김밥 말 듯이 말아 양끝으로 참쌀이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④ _ 찜통에 물이 끓으면 솔잎, 감초, 녹차잎을 깔고 ③의 말아놓은 닭고기를 얹어 30~40분간 찜다.

⑤ _ 찜 닭고기 말이는 한번 김이 나간 후 은박지를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는다.

| 요리감상 |

닭고기와 김치의 궁합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맛을 낸다. 일상식단의 반찬, 손님접대 음식으로 좋다.



육계자조금을 생각한다



김정주 교수
건국대 교수, 육계자조금관리위원

“육계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육계산물에 대한 소비시장을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정부 주도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육계농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에 육계농가가 자율적으로 육계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육계 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육계 및 육계산물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수요도 쉽게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육계농가는 해당 육계산물이 공급과잉일 때 이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육계산물에 대한 소비시장을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육계산물에 대한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홍보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해당 육계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활동을 강화해야 하나,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과는 달리 육계산물의 경우 판매자가 대부분 영세소상인일 뿐 아니라 판매 상인들이 분산 입지되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판촉을 위한 홍보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육계생산자가 육계산물의 판매 촉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지혜가 바로 육계자조금제도이다. 이 육계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육계산물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육계산업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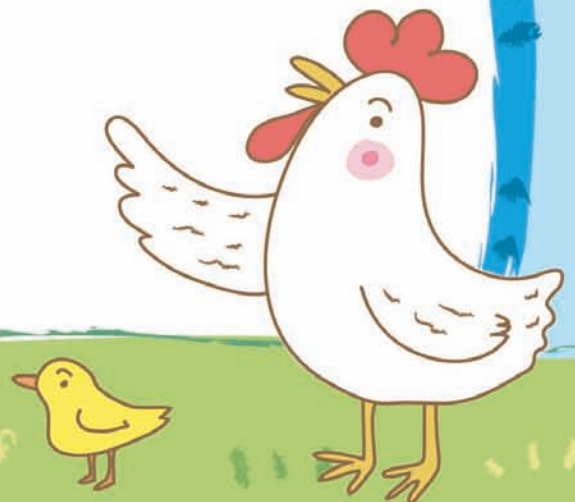
과거에는 마을마다 앞서가는 농가는 단연코 양계농가였다. 산업면에서도 이렇다 할 정부지원 없이 순전히 자력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분야가 한국의 양계산업 분야이다. 그렇게 잘나가던 양계산업이 자조금에 관한 한 모범생이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은 양계산업 관련자 모두가 깊이 반성해볼 일이다.

이처럼 육계분야가 앞서가는 산업이었음에도 자조금 출범은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늦은 것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다른 축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현란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놓아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육계업체는 하루빨리 의무자조금을 정착시켜 앞서 지적인 사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자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자조금의 본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육계분야가 앞서가는 산업이었음에도 자조금 출범은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늦은 것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다른 축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육계산업 급격한 성장세 지속

농경연, 1인당 닭고기소비량 우리나라보다 많아

중국의 육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육류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닭고기가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현재는 해외 자본이 도입되어 계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의 우수한 품종이나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계열화사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서 발간한 ‘중국농업동향’ 2011 봄호의 ‘최근 중국의 축산물 수급 동향’에 따르면 닭고기(육계) 생산량은 2010년 1천260만 톤에서 2011년 1천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중국 육계농가의 생산량 증가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전 세계적인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국내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

어 올해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 상무부가 2010년 9월부터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닭고기 증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내 왕성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주체(integrator)는 계약 농가로부터의 매입 단위를 종래의 2천수에서 5천수 이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나아가 계열주체 소유의 농장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 현장의 통합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닭고기 수급 전망

구분	2009년	2010년(잠정)	2011년(추정)
사육 마리수 (천 마리)	-	-	-
도축 마리수 (천 마리)	8,980	9,296	9,629
생산량(천 톤)	12,100	12,550	13,000
수입량(천 톤)	417	326	280
수출량(천 톤)	291	380	410
소비량(천 톤)	12,226	12,496	12,870
1인당 소비량(kg)	9	9	10

자료 : USDA FAS "Poultry and Products Annual, 2010"



중국의 닭 품종은 1998년 이후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중국인의 취향에 맞는 품미와 식감이 좋은 재래종 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재래종 닭과 수입 닭의 교배를 통한 품종 개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닭고기 생산량의 약 50%를 이러한 개량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닭고기 소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닭고기 구입량은 2009년 기준 1인당 10.47kg으로 농촌지역의 4.25kg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도시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0.4kg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2009년 생산량 중 15% 정도가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닭고기 가격은 2007년 이후 상승하여 2008년에는 1kg당 13위안(1위안 한화로 140원, 1천820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쇠고기 등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도 작고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닭고기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2010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2009년 63만9천 톤(85%)에서 10만2천 톤(21% 1월~11월까지)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중국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감소로 인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3.7%에서 2010년 50.3%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9년 9.1%에서 2010년 25.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중국에서 선호되는 닭 가슴살에서 날개까지의 고기 부위(mid wings)를 충분하게는 공급할



수 없어 미국산 수입량 감소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8년 16만8천 톤, 2009년 17만3천 톤, 2010년 18만2천 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역은 2008년 홍콩(79%), 말레이시아(8.9%), 마카오(3.1%)순이었으나 점차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말레이시아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10년 10.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닭고기 조제품은 80% 이상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잉여 부위로 구분되는 닭 가슴살은 중국내 시장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중국산 닭고기 조제품은 영국으로의 수출량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닭고기(신선, 냉동) 수입량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1~11월)	
	수입량(톤)	비중(%)	수입량(톤)	비중(%)	수입량(톤)	비중(%)
미국	611,595	73.4	639,017	85.2	102,796	21.1
아르헨티나	192,252	23.1	68,435	9.1	123,130	25.3
브라질	131	0.0	27,793	3.7	245,018	50.3
칠레	18,528	2.2	13,799	1.8	14,656	3.0
프랑스	10,443	1.3	608	0.1	1,039	0.2
합계	832,950	100.0	749,652	100.0	486,765	100.0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개인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이 름	농장명	금 액	주 소
1월	유희경		300,000	
	최월순		200,000	
	김성홍(화성)	화성농장	150,0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민전	호박골 농장	110,4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진길섭	여차실 농장	435,570	전북 남원시 대산면
	최봉연	유성농장	189,3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봉진호	동촌농장	150,000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이상길	한마음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하정금	반월농장	224,490	전북 남원시 금지면
	김대영	대영농장	400,000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이인숙	현대농장	90,000	경남 김해시 생림면
	이희천	이희천	150,000	충남 서산시 부석면
	김강훈	은비농장	282,000	충남 부여군 세도면
	김춘자	산양농장	139,000	충남 공주시 유우읍
	이영하(논산)	시온농장	180,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진길섭	여차실농장	214,290	전북 남원시 대산면
2월	정재현	모란농장	195,000	경북 상주시 외남면
	정재현	모란농장	210,000	경북 상주시 외남면
	양영생		99,000	
	이선숙	마정농장	63,000	전북 정읍시 북면
	정정재	성일농장	100,000	화성시 마도면
	진정수	구구축산농장	12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박창운	시온농장	180,00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임금택	임금택농장	129,21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정운섭		150,000	
	정영호	금산농장	360,000	경북 구미시 해평면
	변준석	찬송농장	150,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이순준	노티농장	9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전종관(논산)	다다리양계농장	100,000	충남 논산시 은진면
3월	김종국		360,000	
	최영규	메마위농장	120,000	경기 화성시
	양영생		96,000	
	이상길	한마음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면곡
	정태원(홍성)	홍성사료	483,450	충남 당진군 순성면
	이승목	장수농장	1,080,000	충남 안성시 미양면
	이영하(논산)	시온농장	177,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김대영	대영농장	129,500	전북 순창군 쌍치면
	김춘자	산양농장	188,010	충남 공주시 유우읍

3월	이름	농장명	금액	주소
	김지왕	산영농장	79,710	충남 아산시 염치읍
4월	최봉연	유성농장	162,1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조규진	신송농장	356,418	경북 상주시 외남면
	엄승재	홍양농장	860,100	충남 부여군 홍산면
	최월순		200,000	
	박금수		210,000	
	남윤천	준식농장	300,000	경기 양평군 옥천면
	남상길	법곶농장	30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전종관(논산)	다다리양계농장	135,000	충남 논산시 은진면
	주석기	명인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주석기	명인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변준선	찬송농장	150,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김윤태		138,480	
5월	이상길	한마음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면
	양영생		96,000	
	한민전		110,0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김한영	호수농장	254,700	경기 화성시 송산면
	임금택	임금택농장	126,0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정운광	다운농장	12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김의겸		156,000	
	최봉연	유성농장	150,0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종국		180,000	
	문한순		120,000	

계열사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체리부로 1월	강명희(이상길)	161,280	충북 음성군 소이면
	길일섭(길재홍)	136,830	충남 논산시 성동면
	김경선/물류5원	100,200	전북 정읍시 소성면
	김광석(현대농장)	95,070	경기 화성시 송산면
	김동국	255,120	충북 충주시 산척면
	김명진	214,260	경북 상주시 공성면
	김미자 1농장	86,550	충북 충주시 목행동
	김병협/물류5원	226,920	전남 장성군 진원면
	김선웅	168,750	충남 서산시 운산면
	김성준	202,680	충남 예산군 광서면
	김세현	93,540	충북 진천군 덕산면
	김승기	174,000	충북 보은군 산외면
	김오식	151,080	충남 부여군 초촌면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체리부로 1월	김응수	88,440	충남 홍성군 광천읍
	김중배	78,00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중호	56,124	충남 보령시 웅천읍
	김필례/물류5원	131,820	전북 김제시 봉남면
	김현옥	170,310	경기 화성시 우정읍
	나승룡	117,690	경기 여주군 북내면
	맹주문	117,780	경기 양평군 양동면
	박보경(안효두)	53,382	충북 보은군 산외면
	박용숙	52,740	충남 공주시 정안면
	박임수	195,480	충남 서산시 부석면
	박정식	133,980	경북 상주시 공성면
	박정희	142,320	충남 서산시 고북면
	반개문/물류5원	141,432	전남 영광군 군서면

도계장	이 름	금 액	주 소
체 리 부 로 1 월	백성순/물류5원	192,480	전북 고창군 해리면
	백옥희	83,490	충남 홍성군 은하면
	변인숙	98,94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상모	35,460	충남 당진군 정미면
	손동문	111,81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영태	171,33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신성례	220,740	충남 논산시 상월면
	신영철	103,74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신인수	152,97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안일만	81,240	충남 부여군 충화면
	양삼순	117,930	충북 보은군 탄부면
	연상흠	97,350	충북 진천군 이월면
	염관섭	368,730	충남 보령시 남포면
	유명곤	150,780	충남 서산시 해미면
	유문조(유영진)	19,80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유성종	179,730	충남 청양군 남양면
	유영찬	39,60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유영희/물류5원	80,310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기환	133,2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복	99,450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상석	90,930	충남 서천군 서면
	이순복2농장	7,59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이유순	114,0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은형	161,580	충북 음성군 원남면
	이재만	34,05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재형(희망농장)	150,780	경기 여주군 홍천면
	이정옥2농장	150,732	경북 상주시 낙동면
	이지우	80,700	경북 여주군 능서면
	이청규	114,90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학로	139,23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이현자	87,33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임춘자/물류5원	184,620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전동석	169,440	충남 서천군 마서면
	정길영	88,860	충남 예산군 대술면
	정덕영	69,42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정병욱/물류5원	126,06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정영환	117,720	충남 홍성군 은하면
	정은화	100,320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정한용	193,740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정혜순(원용군)1농장	231,24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현구	64,350	충남 서산시 인지면

도계장	이 름	금 액	주 소
체 리 부 로 1 월	조병섭	132,060	충북 청원군 북이면
	조은미	100,278	충남 공주시 의당면
	차성애	209,730	경북 상주시 낙동면
	채홍현	81,270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천병진	63,150	충남 서산시 팔봉면
	최기수	89,610	강원 홍천군 서면
	최원술	161,130	경기 안성시 중리동
	표복숙	94,260	충북 청원군 북이면
	한경택	147,570	경기 안성시 보개면
	한용현	89,550	충남 당진군 석문면
	허성재1농장	114,120	충북 괴산군 괴산읍
	홍석희	114,270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황보두리	88,800	충북 음성군 음성읍
	황유동	173,130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 계	10,221,414	
체 리 부 로 2 월	공영미(허근행)	89,760	충북 제천시 수산면
	권영팔(삼대농장)	200,730	충남 당진군 우강면
	권영한	108,750	충남 보령시 청소면
	권오득	119,160	충남 홍성군 은하면
	권옥희	191,580	경북 상주시 도남동
	김건수	183,450	경북상주시 낙동면
	김광석(현대농장)	125,040	경기 화성시 송산면
	김미자 2농장	80,100	충북 충주시 금릉동
	김병협/물류5원	168,060	전남 장성군 진원면
	김영기	126,00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영선/물류5원	190,140	전북 고창군 아산면
	김오식	156,510	충남 부여군 초촌면
	김창수	85,410	충남 당진군 합덕읍
	문창열	141,36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박수만/물류5원	203,700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박원모	184,71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반개문/물류5원	82,110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종열	114,390	충남 당진군 송악면
	석재필	126,600	경북 상주시 공성면
	성황용	45,81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송하정	121,080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신성례	114,720	충남 논산시 상월면
	안경순(김충섭)	173,250	경기 여주군 강천면
	안상기	117,21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오인현/물류5원	184,680	경남 산청군 산청읍

도계장	이름	금 액	주 소
체 리 부 로 2 월	오종성	83,70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유문조(유영진)	178,71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유영찬	169,53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윤주영/물류5원	121,17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이간선	78,660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대식	106,86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이동용	206,40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이만구	159,60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상정(음성)	358,920	충북 음성군 소이면
	이용균	279,24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이정옥2농장	24,450	경북 상주시 낙동면
	이준혁	108,99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이현주	120,6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이홍관	168,480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임운채(성산농장)	220,860	전북 고창군 아산면
	장재운	98,190	충남 홍성군 서부면

도계장	이름	금 액	주 소
체 리 부 로 2 월	장현숙(신안농장)	137,520	충북 청원군 내수읍
	정영숙1농장	86,745	충남 홍성군 은하면
	정해순(원용군)1농장	126,66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해순(원용군)1농장	98,58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조정숙	78,69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차성애	147,210	경북 상주시 낙동면
	채영희	173,07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천병진	7,050	충남 서산시 팔봉면
	최길영	183,690	경기 화성시 장안면
	허상근/물류5원	172,620	경남 합천군 가회면
	현병희	101,100	전북 고창군 고수면
	현병희	44,400	전북 고창군 고수면
	호종삼	115,350	충남 당진군 면천면
	홍석희	125,460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 계	7,516,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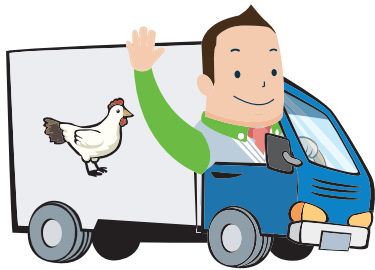
도계장	월	금 액
광진	1월	960,784
	소계	960,784
동우	2월	9,573,946
	소계	9,573,946
금계	3월	1,009,740
	소계	1,009,740
마니커	1월	2,402,479
	2월	1,912,836
	4월	3,131,637
	5월	1,895,179
	소계	9,342,131
성화	1월	915,270
	2월	237,450
	3월	320,601
	4월	197,100
	5월	133,440
	소계	1,803,861
육성	1월	140,130
	2월	337,320
	4월	412,170

도계장	월	금 액
육성	5월	211,950
	소계	1,101,570
하림	1월	2,418,840
	2월	1,002,720
	3월	1,963,050
	4월	1,334,025
	5월	1,684,189
	소계	8,402,824
키토랑	2월	4,609,569
	3월	4,116,780
	4월	3,272,820
	5월	2,907,275
한강CM	소계	14,906,444
	1월	863,220
	2월	577,560
	3월	1,114,240
	4월	757,890
	5월	561,750
	소계	3,874,660

※ 지면관계상 세부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처리절차

-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수당)
- **농가 직접 납부시 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출하

육계,삼계,재래닭,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제11조제3항)



농가 직접 납부

도계 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익월 5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

